목회자 컬럼

주님의교회를 생각하며

임영수 목사

기독교 역사 초기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회상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 기쁨이 있곤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은 빌립보 교회의 건물이 웅장하다든가 교인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그것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교회 공동체로서 매우 아름다운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AD 52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마케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고 유럽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동행하였던 사람이 디모데, 실라, 그리고 누가였습니다.

최초의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은 귀신 들렸던 여인,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의 집안이었는데, 이들의 가정이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는 작고 가난했지만 무척 관대하고 자선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희망 · 기쁨 ·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교회' 입니다. 주님의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도 아니며 웅장한 건물과 많은 수의 신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교회를 생각할 때면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주님의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끝으로 10여년 동안 주님의교회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회하여 오신 이재철 목사님과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담긴 축하의 뜻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네바에서

· 숭실대학 졸업 ·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수료(기독교 윤리)
· 스위스 융 인스티튜트 연구 · 평광교회 담임목사 · 남대문교회 담임목사 · 영락교회 담임목사 역임

함즐
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13호 (격월간)
발행일 1998년 7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5-6
강남 YMCA 1층
T. 511-1497~8 F. 511-1496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주님의교회를 생각하며 / 임영수 목사
2~3
50 대 50 나눔의 10년사 / 황기언 집사
4~7
특집 / 주님의교회 10년을 돌아보며
7
이재철 목사님께 드리는 글
8
임영수 목사님께 / 권오승 장로
9
하나님과의 만남 / 김성재(청년2부)
교회소식
교우동정
10
이재철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고주연, 김슬아, 김윤환, 신진우 (유년부)
Praise the Lord / 유광선
법률상식 / 박동영 집사
의학상식 / 김유호 집사

기고문

50 대 50 나눔의 10년사

황기언 집사

창립 1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지난날을 이야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언뜻 떠오른 생각은 막연함과 한편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다고 하는 것은 10년 세월을 혼자서 이야기한다는 객관성의 문제와, 또 굉장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대로 10년이 지난 이 시점의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제한한다면 첫 예배를 드리게 된 1988년 6월 마지막 주일 이전까지의 과정을 궁금해 하는 교우들이 의외로 많아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훗날 또 누군가가 50년, 100년 교회사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공 정권의 말기였던 1986년부터 1987년의 6. 10 시민 항쟁까지는 이 나라 전체에 짙은 먹구름이 내려덮인 혹암의 시기였습니다. 출범부터 광주 학살의 시한 폭탄을 안은 군사 독재 정권의 불안했던 그 시기에 전국의 대학과 재야 단체들의 반독재 저항이 날로 격심해져 갔고 저지하는 정권에 맞선 학생들의 분신과 투신자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86년말 한 대학생이 정권수호의 공권력으로부터 고문을 당하다 죽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독재 정권의 폭압 통치를 보면서도 침묵했던 우리에게 이 사건은 심한 자괴감과 무력감을 가져왔습니다. 이 혼란기의 와중인 1987년 벽두에 필자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의 영혼을 위해 전국의 교회가 기도 시간을 가지기로 발표된 교단의 결정이 묵살되었습니다. 어쩌면 독재정권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는 그것이 도리어 양심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류사에서 정신문화의 전환을 이룩한 14~16세기에 걸친 르네상스 문화의 저변에는 기독교 사상이 있었고, 이태리 중부의 토스카나 지방을 진원지로 하여 전유럽까지 끼친 그 종교적인 영향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럽의 도시마다 남아 있는 교회 건물의 화려함과 크기는 가히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주일임에도 그곳에는 관광객들로만 가득찬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황폐해 가는 낡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키재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대한 교회 건물들을 보면서 유럽의 도시에서 보았던 교회 건물들이 오버랩되는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역시 불과 몇해 전에 헌당한 교회를 헐고 다시 크게 지으면서 인근 주택을 웃돈을 주고 사서 주차장 확장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나눔에 인색한 오늘날 이 땅 위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 그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김도묵-강정혜 집사님, 홍근용-이영자 집사님, 양동훈 남현숙 집사님, 그리고 필자와 박두리 집사의 네 가정이 교회를 떠났고 그것은 예정 없는 방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서울과 경기 일원의 수많은 교회를 함께 순례하면서 1년여 동안 많은 교회를 보았고, 그곳에는 우리나라 개신교 교단의 장점이자 단점인 개교회 중심의 속성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었으며, 교인들의 소속 교회에 대한 "우리끼리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나 중심의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순례는 뒷날 "주님의교회" 미래상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님 계시는 교회를 찾아 정착을 못하고 있던 1988년 초순경에 떠나온 교회를 함께 섬겼던 한국 기독여류문인회 회장인 정연희 권사님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그 분 역시 방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의 연민이었던지 그 분은 이세 지지기 시작하는 떠돌이 일행을 위해 여류 문인들이 어느 전도사님을 모시고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고 망설일 것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편 출판사 홍성사를 경영하면서 오직 기독 서적만 발행하여 문서선교를 하면서 쿰 선교회를 이끌고 필요한 곳마다 찾아가서 찬송과 말씀으로 선교중인 한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 분이 성경공부반의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분의 짜여진 일정을 비집고 들어가 매주 한 차례씩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서 마침내 방랑자 일행은 영혼의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성경공부반에는 하나 둘씩 찾아든 이전 교회의 옛 교우들과 전도사님 말씀을 듣기 위한 여러 곳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곧 포화가 되었습니다. 홍성사의 강의 공간은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아 강남 YMCA로 자리를 옮겨 성경공부는 계속되었고, 그 분의 맑고 순수한 영혼의 목소리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곳마저 모여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본교회 없이 오랫동안 떠돌아 다니는 신앙생활의 갈등에 네 가정은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 성경공부반의 참석자들과 함께 교회 개척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5월쯤에 떠도는 이 무리를 이끌어주실 부탁의 말씀을 전도사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부탁 드린 쪽이나 받은 쪽 모두에게 예정되지 않은 돌발사태 같은 것이었지만, 되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자신이 세운 뜻과 전혀 다른 방향인 목회에는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듭 간곡히 부탁드렸으며, 전도사님 역시 번민의 기도가 계속된 후 마침내 수락의 말씀이 있었고 이 분이 주님의 교회 첫 10년을 담임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준비 기간 내내 긴장했지만 두려움보다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 시급한 예배 처소의 문제는 이영자 권사님 친지의 배려로 그 분이 운영하는 한남동의 청년여성교육원이 세든 지하실에 더부살이로 마련하고, 마침내 1988년 6월 26일에 창립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분들과 교회 개척에 동참한 옛 교우 가정의 아이들과 축하객까지 포함한 50여 명이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방랑의 우리들에게는 엄동설한의 황야에서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펴진 이불 속에 지친 몸을 뉘히는 것 같은 평안과 안도의 예배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목사님의 열정은 사명감으로 뜨겁게 달아 올랐고 이 작은 공동체에 속한 모두는 목사님을 따라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의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창립예배를 드리던 전날 밤에는 교회의 진로를 위한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도묵 장로님은 헌금의 절반을 선교와 구제에 쓸 것을 제안했고 이재철 목사님 또한 주저 없이 받아들여 주님께 우리 모두가 약속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우리의 예배처소를 가질 수 없다는 마음속의 포기였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은 절반만의 헌금으로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재정은 언제나 궁핍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목사님의 확신에 찬 말씀대로 한치 오차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졌던 수많은 사례가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궁핍해도 50 대 50 나눔의 주님과 약속은 철저히 지켜졌고, 마침내 그로부터 7년여가 지난 1995년 9월의 어느 주일 저녁에 우리 약속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일 저녁예배는 정신여고 합창단의 찬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교회 봉사부에서는 방문해주는 학생들에게 저녁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봉사부장이던 필자는 선교관에서 그 준비를 점검하고는, 학교의 인솔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앉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중에, 학교의 목사님으로부터 정신여고가 오랜 역사를 가졌고 수많은 졸업생이 배출되어 사회 각계에서 활동중인데도, 그 동창회가 추진하는 대강당 건축의 기금이 모이지 않아 진전이 없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큰 행사와 전교생이 함께 예배 드릴 장소가 절실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쪽이나 듣는 쪽 모두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대공사이기에 피차 지나가는 말로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 위에서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이재철 목사님의 평소 말씀대로 그 좌중의 김도묵 장로님은 강당 건축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담당할 것을 목사님께 제안하면서 그 안건이 당회에 통과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즉시 건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건축 계획이 가진 의미와 건물이 상징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세부검토와 합당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 1997년 8월에 기공식을 가졌던 것은 그간의 건축위원회로부터 경과 보고를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여고 합창단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패키지 역사가 차례차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포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원령으로 징집된 그 전문가 그룹이 건축위원회를 지원해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의 입찰 서류들을 정밀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합당한 시공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시행하는 이 공사를 위해, 타사보다 놀랄 만큼 낮은 가격을 제시했으면서도 우리 교회 전문가 그룹이 높이 평가한 강산건설의 대표이사 박재준 집사님은, 외부의 어느 업체와는 달리 이 건축이 이루어지는 뜻을 잘 알고 있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시공중에 있으며, 결론은 준공이 끝나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완공을 앞두고 이제 막 외관이 드러난 강당을 보면서 10년 전에 주님께 드린 그 나눔의 약속이 새롭게 회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우리 교회가 그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목사님과 전교인이 힘을 모았던 그 상급으로 이렇게 훌륭한 예배 처소로 되돌아올 줄은 우리 모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시면서 그 소유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위에서 무엇을 이룩하든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앞으로 이 강당을 드나들 때마다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창립 예배 때 우리 교회가 결코 외관이 큰 교회가 되지 말고 다만 주님의 뜻만을 크게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드린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10년 전 첫 예배를 드린 후 그 헌금으로 전남 묘도에 그 섬이 생긴 이래 첫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헌당했던 기쁨이 10년이 된 시점에서 다시 정신여고 강당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제2, 제3의 정신여고 강당을 또 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꼭 강당이 아닐지라도 50 대 50의 나눔은 이 땅위에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교회가 더 이상 바벨탑 쌓기 경쟁보다는 교회가 존재하는 진정한 사명을 실천하는 그 좌표로 이 강당을 주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첫 10년을 보내면서 스스로의 일생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중에 이 10년이 인생의 황금기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모두는 이 교회에서 주님과 인연 맺은 10년째의 날을 각각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 10년이 일생의 가장 보람찬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 받았음에 틀림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10년 사역을 마친 당신의 종과 헤어집니다. 이 땅 위에서의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한이 남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헤어짐은 훗날 영원히 이별 없는 하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아쉬움을 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년간 그가 애쓴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예비하신 그 앞길에 길잡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주님께 일생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그 뜻을 주님 아시오매 세상 속에서 행하는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옵고 늘 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특별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만남의 주선자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8. 5. 30
황 기언 집사

특집

주님의교회 10년을 돌아보며

남선교회

함즐함울의 삶으로 21세기 아름다운 주님의교회를

문창복 장로(제1남선교회 회장)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교회, 그 굳세고 강건한 믿음 앞에 우리 하나 되어 무릎 꿇고 기도한 지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숱한 고난과 기쁨이 교차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아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우리 곁에서 능력의 말씀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거룩한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즐함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해온 성도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산고 끝에 태어난 아기가 더욱 사랑스럽고 소중하듯 그 동안 주님의교회는 첫 예배 처소에서 YMCA를 거쳐 현재의 정신여고로 옮기기까지 가나안을 찾아가는 모세의 행로를 걸어왔습니다. 저희들의 선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이재철 목사님께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재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의교회는 짜임새 있는 목회 프로그램과 교역자님 ·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과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헌신하여 충실한 믿음의 터전을 닦아온 결과, 6교구 79구역, 2,000여 명의 장년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 중심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곧 해왔던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충만한 성령의 가호 아래 기도 · 봉사 · 선교, · 구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교회 내의 남 · 여선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것은 주님께서 불러모아 주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2,000여 명의 나눔의 실천과 훈련장의 선교회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늘어난 성도님들이 서로를 알고 깊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성도님간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굳건히 하나가 되어 언제나 함께 주님의 사업 계획을 의논하고 봉사와 헌신으로 선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아름다운 21세기 주님의교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에 먼저 가신 교우님으로부터 형제 교우로서 환영받고, 우리도 기꺼이 다가갈 수 있는 천국에의 소망을 위해 우리는 충만한 믿음으로 "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소임을 다하며 제직부서와 선교회의 귀중함을 깨달아 "모이는 데 힘쓰며" 함즐함울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복음의 진수와 능력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여선교회

섬김과 나눔의 훈련장

임선자 권사(제1여선교회 회장)

주님의교회가 창립된 지 어느덧 10년이 됩니다. 1988년 6월 26일 창립되어서 10여명으로 시작하였던 주님의교회 여선교회가 90년 2개의 여선교회로, 93년 3개의 여선교회로, 94년부터 5개의 여선교회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개 여선교회의 구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여선교회는 만 51세 이상, 제2여선교회는 만 46세 이상, 제3여선교회는 만 41세 이상, 제4여선교회는 만 36세 이상, 제5여선교회는 만 3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이끌어 주셨던 역대 임원들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작은 힘이나마 구제와 선교를 하게 해주시고 올해로 6회에 걸쳐 더불어 사는 삶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돌림잔치를 치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5년 동안 물건을 내서 낼 물건이 없다고 걱정하는 얘기를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한 해 쉬어도 좋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쉬어 볼까 생각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돌림잔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족한 물품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여선교회가 합심하여 참여함으로써 성도간의 친교가 더욱 돈독해지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4넷째, 수요일마다 여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노인 점심 봉사를 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선교관에서 10명에서 20명 남짓 되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소임을 조금이나마 실행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교육관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다소 열악해진 환경에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모든 여선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봉사에 힘입어 현재는 80명에서 90명 가량의 노인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를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었음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구역 식구들이나 봉사 부서 외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선교회 모임이 좋은 친교의 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과 해답을 주는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여선교회 위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1988
to
1998

봉사부

교회 봉사란?

성백술 장로(봉사위원장)

교회에 소속된 믿는 사람들의 특정그룹을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하며 그들의 책임 의무 중 하나로 봉사적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 봉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가지의 뜻이 있겠으나 집약하면, 남의 뜻을 받들어 헌신적으로 일함을 뜻하며 노무의 대가를 받는 봉사와 반대급부가 없는 희생적 봉사로 구별된다. 교회 봉사는 후자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다각적인 교회 봉사 생활이라는 불가결한 요소를 갖는다. 또한 교회 봉사는 희생으로 특정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봉사자의 책무(대상 23:1-26:32)도 다양하고, 자세 또한 강도있게 성경(주로 딤, 고전,후서)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 봉사의 원칙과 방법과 태도는 어디에 있을까? 〈고전 4:2〉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함으로 헌신하라는 말씀이다. 「George Whitfield」는 눈이 가리워진 채 하나님의 보호 안에 던져지길 원했고, 「Hellen Keller」는 당신의 눈은 '진리를 보는 곳' 에 사용하고 모든 지체 또한 그렇게 사용하라고 충고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씨줄' 에 날마다 의미있는 '날줄' 을 짜나가는 최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모두 「봉사의 삶」을 살라는 교훈이다. 주님의교회가 창립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주님의교회」 생활을 통하여 교회봉사의 참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돌이켜 자성해 본다.

「봉사에는 희생이 있어야」

「손봉호」교수는 「신앙강좌 시리즈」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가능한 한 유급 전담 봉사자를 최소화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봉사를 통해 성도와 성도 사이의 막힌 담을 헐라고 했다. 교회봉사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했다. 「촛불이 녹아 자기 승화를 이룬다」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러기에 짐을 나눠 져야 한다.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갈 6:2) 주님의교회 봉사 원칙은 여기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 친교, 주방, 성가대, 교사, 차량안내, 상담, 선교 등 모든 면을 그 원칙 속에서 행함으로 새 생명과 기쁨, 그리고 은혜와 위로의 훈련을 쌓아왔다고 조심스럽게 말해 보고 싶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딤후 2:20-21」에서는 쓰임 받는 그릇에 대한 말씀이 있다. 「눅 19:」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은 주어진 성품이 각각 다르다. 그저 열심만으로 자랑하기 위하여 아무 판단 없이 남의 일까지 뺏고는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봉사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마치 황새의 발을 물고 하늘을 날다 어리석게도 자신이 '개구리' 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랑하려고 입을 벌려 떨어져 죽은 개구리처럼)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과 전체의 조화를 이루며 합력해서 봉사하려는 사람이다. 교회 봉사라는 헌신을 통해 자기의 이상이나 충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합당한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봉사한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가시' 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올바른 지체 의식을 가지고 상호 사역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눠 행하는 봉사 속에서 교회에는 덕이 되고, 성도간에는 화목함으로 교회 봉사의 지혜와 근원을 찾아 분명 참된 헌신의 가치를 찾아 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봉사는 사랑으로 행하여야」

키우는 짐승도 주인이 미워하는 마음을 안다고 한다. 조금만 미워하는 기색만 보여도 그 짐승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의 실체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뜻과 마음과 몸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봉사의 종착역은 사랑이다. 사랑 없는 마음, 실천 없는 사랑 속에서 행하는 교회 봉사는 봉사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올바른 봉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마음가짐으로 협력하는 마음에다 사랑을 더할 때 교회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주님의교회는 「말씀」, 「예배」, 「사고」, 「시야」, 「제도」를 회복하는 교회로 훈련하셨다고 이재철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는 회복이라는 반석 위에서 제2기 성장을 위해 사랑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겸손히 감사의 기도 속에서 행하는 봉사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질에 충실한 봉사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간구해 본다.

재정위원회

주님이 손수 지으시는 정신여고 강당

김소일 장로(재정위원장)

지붕 공사가 한창인 강당을 바라보며 지난 2년여 동안 이루어진 일들과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사와 설레임과 기쁨이 넘쳐옵니다.

95년 여름, 정신여고 합창단이 주님의교회를 방문하여 찬양을 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 이재철 목사님과 지동소 교장 선생님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서 이십여 년 전부터 정신여고와 많은 동문들이 강당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당회에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당회의 특징 중 하나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는 다음 당회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결의하는 것이어서 강당 건축안을 가지고 모든 당회원들이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로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함을 모두가 확신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백여 년 전에 외국 선교사를 통하여 세우신 주님의 학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킬 강당이 꼭 필요한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루지 못함을 알았을 때, 주님의교회가 건물 없는 목회를 하게 하셨고, 헌금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토록 훈련시키셨음이 이때를 위한 주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95년 8월 22일 2천여 평의 건물로 70~80억이 소요되는 큰 공사를 우리 교회가 맡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천 명이 못되는 적은 수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심은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목도케 하시려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결의함에 맞추어 하나님께서는 설계와 건축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이귀영 집사님과 박재준 집사님을 선택하셨습니다.

1988
to
1998

또한 이 분들이었기에 여러 번의 설계 변경과 어려운 경제 불황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과 인내로써 이와 같은 큰 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건축 시작부터 지금까지 온 정성을 쏟으시는 S장로님, 신수비를 삭감하시면서까지 협력하시는 교역자님들, 온 정성으로 헌금하시고 헌물하시는 교우님들.

재정을 맡은 자로서 염려도 많으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있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작년에 계획한 금액을 신년 예배 때에 맞추어 주셨던 기적(?)을 7월 말에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려는지 기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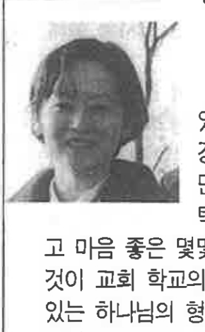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심과 기쁨으로 참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으리라!

이 강당에서 정신의 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이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리라!

못내 섭섭한 마음은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인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이 손수 계획하신 강당이오니 주님이시여 아름답게 지으소서.
아멘

교회학교



주님의교회 교회 학교를 돌아보며

정한조 · 김효숙 목사

'아기 돌보는 곳' 으로 태어난 교회 학교

주님의교회가 생기던 날 교회 학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창립이 되던 해엔 장년들을 중심한 예배와 성경공부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장년의 수가 늘어나면서 장년들과 함께 오는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줄 탁아 기능이 필요했다. 현실적 필요에 의해 믿음 좋고 마음 좋은 몇몇 집사님들이 코흘리개 아이들을 업어주고 얼러주던 것이 교회 학교의 시작이다. 이후 아이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어 주고픈 소수 교사들의 헌신과 교회의 지원 아래 교회 학교는 그 틀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그 키가 자라간 교회 학교

지난 몇 년간 한국 개신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위기감과 더불어 이에 따른 교회 학교의 위축 문제가 교회마다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 교회 학교는 장년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명으로 시작된 교회 학교는 7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의 수도 해마다 증가해서 보조 교사를 포함해 16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교역자 수도 9명(교육전도사 6명, 교육전임 3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형 교회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장년 대비 교회 학교 출석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교회 학교 내에선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교회 학교만의 힘으론 불가능하다. 문제의 원인이 신앙의 대물림을 하는 데 소홀한 부모들에게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해결책 또한 함께 기도하며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교회학교(명)		70	150	250	300	350	350	400	420	485	527
장년부(명)	80	150	300	450	600	850	1050	1200	1460	1670	1955
교회학교/장년(%)		46.7	50	55.6	50	41.2	33.3	33.3	28.8	29	27

(해당연도의 평균출석임)

그 지혜가 자라간 교회 학교

영아부부터 청년1부까지 10개 부서로 나뉘어져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아마추어가 아닌 신학을 전공한 교역자들과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장년 예배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교육 대상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형태의 예배와 성경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일 오전 시간 외에도 절기 및 계절에 따른 특별 교육시간-성경 학교 및 수련회-이 마련되고 있다. 특별히 청년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1996년 1월부터 청년을 중심한 4부 예배 시간을 마련했으며, 이 예배를 위해 JESUS성가대, 찬양단 '새벽이슬' 이 태어났다.

또한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지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교사양성대학이 있었지만 3-4일 동안의 교리 교육이 전부였다. 최근 3년 전부터 시행된 교사양성대학은 양질의 교사를 만드는 훈련소가 되었다. 지난 5월까지 수료한 교사들을 포함해 수료자는 총 108명이 되었다. 교사 입문과정인 양성대학 외에도 기존 교사들의 심화학습을 위한 교사 계속 교육과, 새로이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 연초엔 신임교사 교육 등이 있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외부 강사보다는 무궁무진한 평신도 자원을 개발해서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부 간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한편 교회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먼저 1996년 11월부터 매주일 저녁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지를 작성해 배부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교회학교 각 부서가 1년 1주씩 주관하는 가족 찬양예배를 시작해, 1998년엔 52주 전체가 가족찬양예배로 열리게 되었다. 특별히 장년 예배를 참여할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교육 경험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1997년 5월부터 교회 학교 학생들의 영적 부모와 육적 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교사-학부모기도회 시간이 마련되었다. 매월 둘째 주일 지난 목요일이면 많은 분들이 모이진 않지만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멋진 교사들과 부모님들을 뵐 때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 외에도 교육부에선 아픔 있는 개인을 돕고 보다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분들을 위해 상담 세미나와 결혼 교실, 호스피스 교육을 열고 있다. 자신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배움의 자리를 찾는 분들이 꽤이나 많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교회 학교를 꿈꾸며

이제 주님의교회 교회 학교도 제2기를 맞이하게 된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양적, · 질적 성장을 해온 교회 학교는 정신여고 강당 완공 후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환경만이 좋아졌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에게 깊은 영성과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 교사와 학생의 깊은 신뢰 관계, 교사, 교역자와 학부모와의 유대관계, 다양한 프로그램 및 평신도 자원의 개발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실 것이다.

1988
to
1998

음악부

찬양으로 이어진 10년, 더욱 찬양 드릴 10년

박치용 집사(시온성가대 지휘자)

1989년 가을,

나는 그해 여름에 창단하여 걸음마 단계를 걷고 있던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일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계획, 준비해오던 유학을 떠날 지 고민스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져 결정을 하기에 더욱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그 당시 봉사하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셨던 은사님께서 다른 교회 성가대 지휘를 권유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기존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유학길에 오를 때까지 봉사할 작정이었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한 단계에 이를 때에라야 성가대 지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몇 분의 성도님들을 알고 교회의 비전이 남다르다는 사실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주님의교회' 라는 이상한(?) 개척 교회에서의 봉사는 그저 마음에 부담만 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충분한 기도와 마음의 준비도 없이 시작되었던 주님의교회에서의 봉사가 벌써 9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내가 주님의교회에 오게 된 것이, 은사님의 강권에 의해 떠밀려 왔다거나 나의 짧은 생각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주님의교회 봉사를 시작하기 6개월 전 시작된 서울 모테트 합창단을 부족한 나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오차 없는 치밀한 섭리였음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나 자신은 물론 성가대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축복을 몇 가지 생각해 본다.

첫째로,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온 교회의 수요에 충분한 찬양의 지도자, 헌신자들을 보내주셔서 목회를 도우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비교적) 소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성가대원의 자리는 성도로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나, 합창을 통한 봉사이므로 개개인의 헌신된 마음이 덜 강조되어 안이한 봉사로 이어지기 쉬우나, 모든 내원들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성가대로 (대원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이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은혜롭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성가대인데, 지난 10년간 그런 일로 인해 크게 시험 당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성가대 봉사자들이 성가대는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본을 보임으로 대원들간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받아 연합을 통한 더욱 은혜로운 찬양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모든 성가대원들이 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끝으로 앞으로의 10년, 우리의 미래의 찬양, 성가대를 생각해 본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말씀은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찬양은 그 구원 역사에 대한 모든 성도들의 최우선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찬양은 말씀의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님께 대한 열심과 더욱 깊은 영성을 갖게 하여 그 깨달음이 전인격적인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는 촉매제라 생각한다.

그런데 찬양(교회 음악)이 교회의 역사와 전례(예배)에서 말씀과 함께 가장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현재 우리 교회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속에 말씀에 대한 연구와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 장년 교인만 2,000여 명에 달하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한가지 아쉬운 것은 교회 안의 각 기관들마다 헌신자가 부족하여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 우리 주님의교회가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앞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올바르게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전인격적인 삶의 헌신과 봉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찬양을 더욱 연구하고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깨달음에 대한 감격을 늘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글

이재철 목사님께 드리는 글

사랑하는 이재철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1988년 6월 26일 주님의교회를 창립하시어 만10년 동안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을 나누는 참된 목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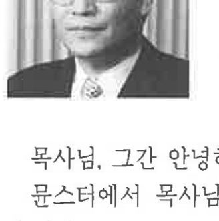
저희들은 주님의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참된 교회의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님의교회와 목사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것은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주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인간다운 기도에는 쉽게 공감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다운 기도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저희들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오늘의 헤어짐이 영원한 만남을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사님과의 헤어짐을 어렵게 수용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부디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인류를 위하여 일하기로 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당신이 그리울 때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주신 묵상기도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8. 6. 21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교인 일동

- 이 글은 퇴임하신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교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글로, 목사님께 기념패로 증정하려 하였으나 고사하셔서 본 란에 내용만을 싣습니다.

편지



임영수 목사님께

권오승 장로

목사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뮌스터에서 목사님을 만나 뵌 지도 벌써 2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중고등학교때까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으나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과학에 눈뜨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와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게 되어, 상당히 오랫동안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남아 있다가 40이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이것이 주님의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이재철 목사님께서 개척하여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이재철 목사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바로 그것이 문제의 소지라고 생각하여 자신은 내년 6월 말까지(만 10년)만 시무하고 그 이후에는 당분간 목회를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했으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분은 이 목사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목사님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왔습니다. 저희 주님의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예비해 놓고 계신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당회에서는 몇 분의 후보자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임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떠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임목사님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게 되었는데, 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거론되자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그 분이 오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하여, 이재철 목사님과 제가 대표로 지난번에 임 목사님을 찾아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번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똑바로 인도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교회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과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여러가지의 사회문제의 해결과 조국의 통일, 나아가서는 인류평화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 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뮌스터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이러한 저의 확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교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이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 자체에 너무나 감사해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내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들은 정신여고 대강당 신축을 위한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신여고측에서는 20여 년에 걸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며, 저희들은 우리와 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일을 맡겨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교회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여 성도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보탬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제 내년 9월에 정신여고 강당이 완공되면 그러한 불편도 없어집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를 제대로 인도해 주시면 저희 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부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로 하여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난번 저희들의 방문시에 따뜻하게 영접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체독중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theologieren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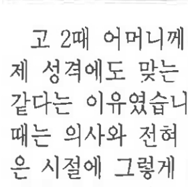
1997. 8. 5.
서울에서 권오승 올림

- 이 편지는 필자가 작년 7월 우리 교회 당회의 위촉을 받고 임영수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 위하여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당시 독일에 체재하고 계시던 임 목사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임 목사님께 올렸던 것이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간증



하나님과의 만남

김성재(청년2부)

고 2때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의과대학에 가면 어떻겠니"하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제 성격에도 맞는 것 같고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각과는 달리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의사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생하기도 싫었고, 결정적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사에 대한 나쁜 인식, 예를 들면 의사는 돈만 좋아하고 환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등등이 제 뇌리 속에 깊숙히 인식되어 있어서 의사는 절대로 되기 싫었습니다. 의대에는 절대 안 갈거라는 다짐을 하면서 고3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고3 기간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 섭리하심에 따라 매우 '괴롭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내신, 수능, 본고사 세 가지 성적이 모두 정신 없이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떨어지는 성적은 달리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지만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적은 떨어지고 있었고, 그나마 남아 있는 자존심과 그래도 혹시나 하는 희망만이 수능시험 보는 날까지 저를 버텨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수능시험 보기 전날 밤 연탄가스를 마시게 되었고, 미처 그 사실을 모른 채 저는 쪼개지도록 아픈 머리를 붙잡고 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와서야 제가 연탄가스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의 꿈,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모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포기하는 것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즉 보통의 어린 모태 신앙 신자들이 생각하는, 말 안들으면 벌 주시고 지옥에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성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너의 모든 삶이 나의 계획 안에 있단다.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단순히 벌 주시는 그러면서도 정작 나의 삶과는 별 관계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하게 너무나도 포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감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간 나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나를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수능 성적을 보면 합격을 자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감사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본고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제 4년이 지나 본과 2학년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너무 힘든 중에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의대 공부, 학교 기독 서클 섬기는 일, 교회 활동을 하면서 실수할 때도 많이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울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실제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과정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나의 모습, 그리고 천국에서의 소망을 생각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니까요.

교우동정

▶ 결혼
- 박성돈 · 한정희 성도(4구역) 딸 혜선 - 5/9
- 남장희 · 김영숙 집사 - 6/16
- 신영무 · 김현실 집사(26구역) 장녀 지영- 6/18
- 홍근용 장로 · 이영자 권사(47구역) 차남 성준 - 4/25
- 윤영자 집사(51구역) 장남 유철훈- 5/15
- 김호탁 · 조윤정 집사(66구역) 장남 성헌- 5/30

▶ 소천
- 손정희 집사 모친상(13구역)
- 조남홍 집사 부친상(50구역)
- 신윤숙 성도 시부상(47구역)
- 정양재 집사 부친상(58구역)

▶ 이사
- 김미연 성도(12구역) 성동구 마장동 현대A 108-2202
- 조은화 성도(11구역)
- 하승락 집사(13구역) 잠실3단지
- 이영재 집사(15구역) 강남구 대치동 은마A
- 이명선 집사(52구역) 강남구 도곡동 럭키A 103-105(572-8215)
- 박지원 집사(48구역)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환A 1105-1702 (0342-701-1589)
- 최경호 집사(43구역) 송파구 신천동 장미A 28-1009
- 김영권 집사(44구역) 강남구 수서동 삼성A 106-1103(226-0346)
- 신인상 · 채영애 집사(66구역) 성북구 석관동 두산A 102-1103

▶ 창업 · 이전 · 인사이동
- 김신혜 집사(2) 피아노학원 개업 (서초동 무지개A 앞)
- 주영정 · 최점자 집사(22) 속성사진카트점 개업(신촌)
- 안성찬 · 박지화 집사(35) 부띠끄 '안피가로' 이전(747-0945-6)
- 박영준 · 왕지혜 집사(31) '카이노스' 이전(르네상스호텔 B1, 538-1466)
- 김미숙 집사(7) 부산 중앙여중 교사
- 고광중 · 김윤영 집사(14) 서울 본점

▶ 이민
- 서진수 · 윤진숙 집사 캐나다 이민

교회소식

장로 · 권사 · 안수집사 임직식

6월 21일 교회칭립주일을 맞이하여 3부 예배시 장로 · 권사 · 안수집사 임직식이 거행되었다. 이번에 임직하신 분은 다음과 같다.

- 장로취임 : 문창복
- 권사취임 : 장순현
- 집사안수 : 오세윤, 전세표

정기 제직회 소식

지난 6월 10일 수요예배후 정기 제직회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정신여고 대강당 신축 공사는 9월 30일 완공, 11월초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요 예배후 성수대교 방향 진행 차량은 YMCA 정문에서 좌회전하지 말고 경복APT 앞에서 신호등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U턴 할 것. 정신여고 예배 주차시에도 차량 안내부원의 지시에 따르고, 기어는 반드시 중립에 둘 것.

· 다음 제직회부터는 문창복 장로님의 임기 만료로 류달현 집사님이 서기로 수고하시게 된다.

· 권오승 장로님의 1년간 해외교육출장으로 한윤경 장로님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 횡성 수련원을 관리해 오시던 엄일용 집사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올해 말까지만 봉사하게 되어 대신 수고해주실 분을 찾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마세요

정신여고 예배 주차시 혼잡한 관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차량봉사부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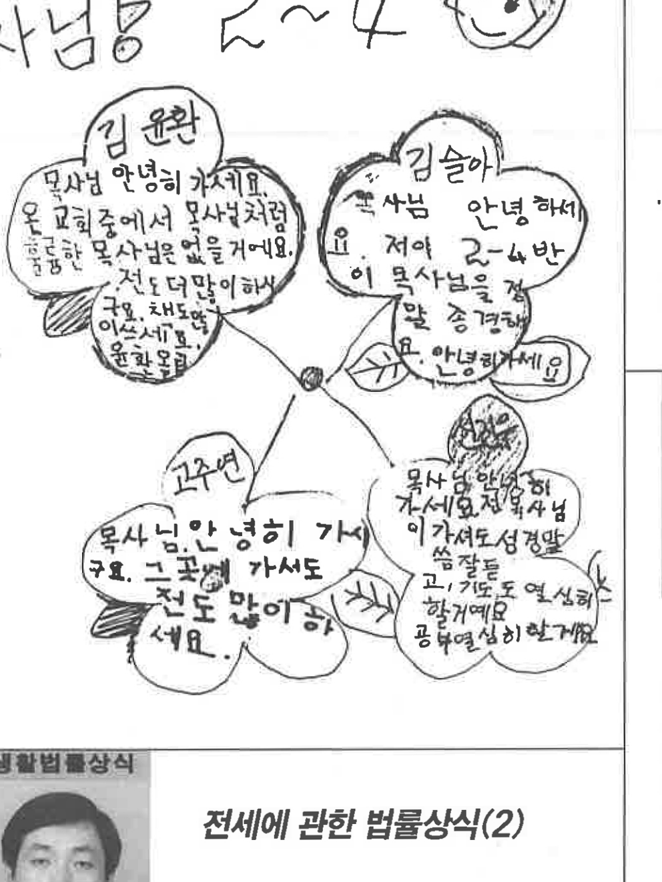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월 21일 이재철 목사님이 10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4부예배 후 떠나시는 목사님과 가족을, 전교인이 도열하여 환송하며 감사와 아쉬움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재철 목사님은 9월부터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3년간 시무하신다.

글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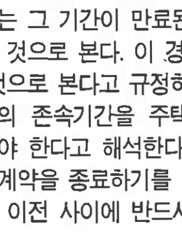
이재철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고주연, 김슬아, 김윤환, 신진우(유년부)



안녕하세요.
목사님 2~4
김윤환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온 교회중에서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은 없을거에요. 전도 더 많이 하세구요. 채도딱 이쓰세요. 윤환 올림
김슬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의 2-4반 이 목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안녕히가세요
고주연
목사님 안녕히 가세구요. 그곳에 가서도 전도 많이 하세요.
신진우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저는 목사님이 가셔도 성경말씀 잘듣고, 기도도 열심히 할거예요 공부열심히 할거예요

생활법률상식



전세에 관한 법률상식(2)

박동영 집사 (판사)

질문: A는 1997. 1. 1 B 소유의 집에 관하여 기간 2년, 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쌍방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전세기간이 끝났다. 이 경우 A와 B 사이의 전세계약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6조 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경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 따라 2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최초의 전세기간의 만료만으로 전세계약을 종료하기를 바라는 집주인은,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이전 사이에 반드시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하고, 만일 이 통지를 하지 않고 전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계약의 부담을 안아야 하고 그 기간은 2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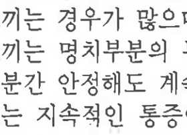
편지

Praise the Lord

유광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Ohio주의 Cleveland에 있는 유광선이라고 합니다. 주님의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들으면 항상 고향에 온 것 같아 푸근해서 좋습니다. 이 목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영락교회 은평부에 있을 때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항상 목사님의 글과 설교를 관심있게 보며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올해 1월 4일의 설교가 눈에 들어와서 듣다 보니 평소에 궁금했던 10년 정년에 관한 문제와 후임 목사님 선정문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임영수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Awesome God!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유학생활에서 가장 그리웠던 것이 영락교회에서 듣던 임영수 목사님의 설교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주님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재철 목사님과 주님의교회 성도님들께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의학상식



증상으로 알아보는 심장질환(1)

김유호 집사(심장전문의)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차면 심장병이 있지 않나 의심하게 됩니다. 심장의 외벽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근육으로 신선한 혈류가 차단됨에 따라 심장의 펌프기능이 떨어져 운동시 전에보다 숨이 차고, 계단을 올라갈 때나 과식 후 또는 빨리 움직일 때 가슴이 뻐근하고 무겁게 누르는 듯이 아프고, 때로 팔이 저리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의 여러 증상은 동작을 중지하거나 안정하면 수분 내에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장외벽의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어 그 혈관으로부터 신선한 혈액을 공급받던 심장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면 심근경색의 상태가 됩니다. 증상으로는 극심한 흉통이 움직임으로 악화되며 식은땀이 몹시 흐르고 얼굴이 창백하게 되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진행하면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호흡기질환이나 과도한 체중증가의 결과로 오는 호흡곤란은 움직일 때나 안정시에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흉통과 동반되는 경우가 적고, 급체에 의해 느끼는 명치부분의 통증은 협심증과 비슷하나 운동과는 무관하며 수분간 안정해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심근경색에서 오는 지속적인 통증이 명치부분에서 느껴질 경우가 있는데, 때로 급체로 오인하여 소화제 등만을 복용하다가 조기에 치료를 못받음으로 위험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급체시에는 통증이 움직임으로 악화되지는 않고 호흡곤란은 없습니다.

건강한 많은 분들이 가끔 느끼는 흉통들은 대개 운동과는 무관하며, 가슴을 찌르거나 또는 답답한 증상이 몇 초간 아주 짧게 생겼다가 곧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 계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협심증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으로 근육통이나 소화기능장애 또는 불안 · 염려 등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즐함울 13호는 창립 10주년 특집기사로 10면 발행합니다.